

IBK MAGAZINE

WIN CLASS



IBK PRIVATE BANKING QUARTERLY MAGAZINE

2019. **SUMMER**

VOL. 14



계절의 클라이맥스에 갖는 힐링 타임

한국 경제가 각종 지표에서 바닥을 치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 미·중 무역전쟁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반등 기회를 노리기도 쉽지 않다. 실업자수와 실업률은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봄 내내 우리를 괴롭혔던 미세먼지처럼 한국 경제는 뿌영기만 하다.

그렇게 맞은 여름. 여름은 계절의 클라이맥스인 동시에 가을로 설핏 들어서는 입구다. 그래서인지 여름을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중요한 무언가를 놓쳐 버린 것만 같다. 푸른빛 바다에서 작은 상어가 헤엄치고, 밤이면 쏟아질 듯한 별이 하늘 가득 펼쳐지며, 파도 소리가 섬을 채우는 곳에서의 힐링 타임. 당신이 꿈꾸는 여름날의 모습은 어떠한가. 뜨거운 태양과 열대야 속에서도 우리 곁을 스치는 한 줄기 바람처럼 한국 경제에 반가운 소식이 찾아올까. 여름과 마주한 지금, 간절하게 바라본다. '시원한 여름'을 보낸 뒤 '풍족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기를.

Words 박영화

Contents

2019. SUMMER VOL. 14

- 02 **PROLOGUE**
계절의 클라이맥스에 갖는 힐링 타임
- 04 **SPECIAL COLUMN 1**
화폐개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08 **SPECIAL COLUMN 2**
베트남 투자 열풍 어떻게 볼 것인가?
- 12 **SPECIAL COLUMN 3**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핀테크냐 테크핀이냐
- 16 **INVESTMENT**
3분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 20 **WM CLASS**
찾아가는 자산관리 클래스
평택지점 고객사 남방CNA주식회사
- 24 **WM CENTER**
평촌WM센터, 부드러운과 섬세함으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프트파워
- 28 **TRAVEL**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모든 걸 할 자유 몰디브
- 34 **BRAND STORY**
가방 그 이상의 가치
- 36 **TODAY'S ART**
꿈꾸는 모든 이는 아름답다 김다령 작가
- 40 **BOOK AND MOVIE**
'수단' 아닌 '목적'으로서의 개의 삶은 어디 있나
<베일리 어게인>
- 42 **IBK FUND**
이달의 추천 펀드



발행일 2019년 6월 5일 발행처 IBK기업은행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82 기획·디자인·제작·인쇄 경성문화사 02-786-2999
<WIN CLASS>는 프리미엄 경제·금융·문화 정보를 담은 <IBK MAGAZINE>의 별본입니다.

<WIN CLASS>의 외부 필자 원고는 IBK기업은행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실적배당형 상품이어서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폐개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총재의 리디노미네이션
발언으로 화폐개혁에 대한 논의가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21세기 한국 사회에는 1,000원을
1원으로 하는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할까?
리디노미네이션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Words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진 투자컨설팅 대표

지난 4월 말 서울 강남의 고액 자산가들은 술렁거렸다. 바로 '화폐개혁이 연내 이뤄질 것'이란 루머 때문이었다. 실제로 집 금고에 넣어둔 현금으로 금과 달러를 사거나, 강남 급매 아파트를 사고,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꾸는 진풍경도 나왔다. 이처럼 갑자기 '화폐개혁'이란 단어가 느닷없이 등장한 건 바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의 발언 때문이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3월 말 국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물론 이후 "국회의 리디노미네이션 관련 질문에 원론적으로 대답했던 것"이라며 "전혀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었다. 물론 이후 리디노미네이션 관련 그 어떤 것도 구체화된 것은 없다. 한국은행도 계속 '절대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결국 언젠가는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정말 이런 화폐개혁이 나온다면 한국 경제에는 그리고 나의 재테크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리디노미네이션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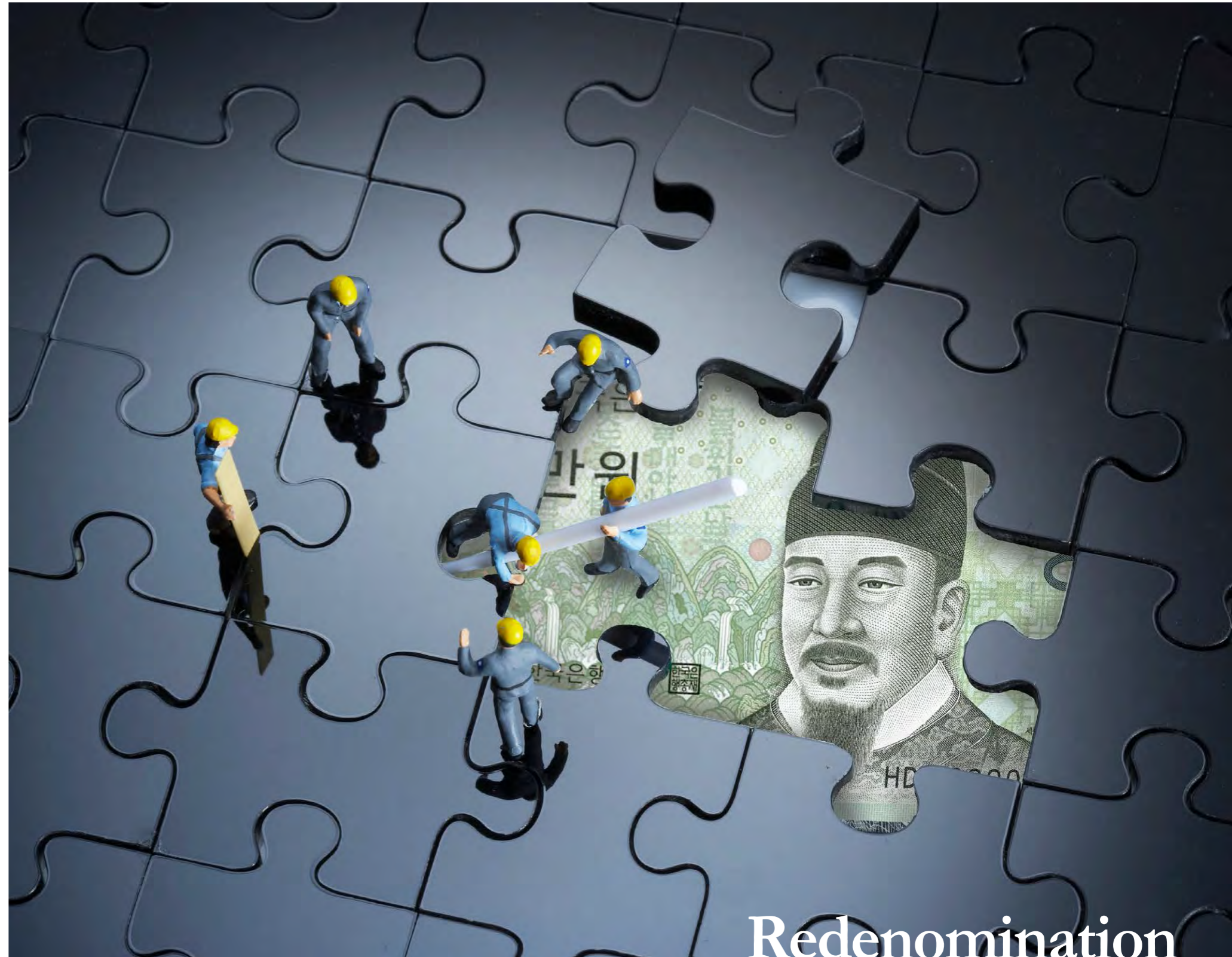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화폐가치는 그대로 두고 호칭과 단위만을 바꾸는 '화폐개혁'을 말한다.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이 화폐나 채권, 주식 등의 액면금액을 가리키니까, 우

리말로 하면 '디노미네이션의 변경'인데 영어적 표현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쉽게 생각해 1,000원을 1환으로 바꾸는 거다. 이걸 1000분의 1을 한 것이고, 100분의 1을 하면 1,000원은 10환이 될 것이다. 화폐개혁에는 모양을 바꾸거나 고액권을 발행하는 것도 있지만 역시 리디노미네이션이 가장 핵심이다. 과거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이 리디노미네이션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실제로 지난 2003~2004년 한국은행은 기존 1,000원을 1환으로 바꿔 기축통화인 미 달러화 가치와 원화가치를 1대 1 비슷한 비율로 맞추는 고민도 했다. 하지만 당시엔 워낙 언론과의 전쟁이 극심했던 터라 흐지부지 묻히게 됐다.

그렇다면 먼저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찬반 의견을 정리해보자. 찬성 쪽의 첫 번째 논거는 거래 편의성이다. 미국의 1달러를 우리는 1,174원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장사하는 분들은 이 '우수리'가 여간 불편하다고 한다. 공공요금을 납부할 때도 불편하고 은행 송금하려고 할 때도 끝 자릿수를 틀릴까 봐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인다.

찬성의 두 번째 논거는 원화의 대외신인도, 나아가 국격 신장에서 찾을 수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미국 1달러대 환율이 네 자리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 정도 환율 수준은 라오스, 탄자니아 정도인데, 이 때문에 원화와 대한민국이 저평가를 받는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유럽 관광객들은 환전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한국을 저평가하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찬성의 세 번째 논거는 역시 지하자금 양성화이다. 은행에 가서 기존 화폐를 새로운 화폐로 한번은 바꿔야 하니까 지하자금은 한번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 한국 경제에도, 정부 재정에도 꽤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Redenomination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 화폐가치는 그대로 두고 호칭과 단위만을 바꾸는 '화폐개혁'을 말한다.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이 화폐나 채권, 주식 등의 액면금액을 가리키니까, 우리말로 하면 '디노미네이션의 변경'인데 영어적 표현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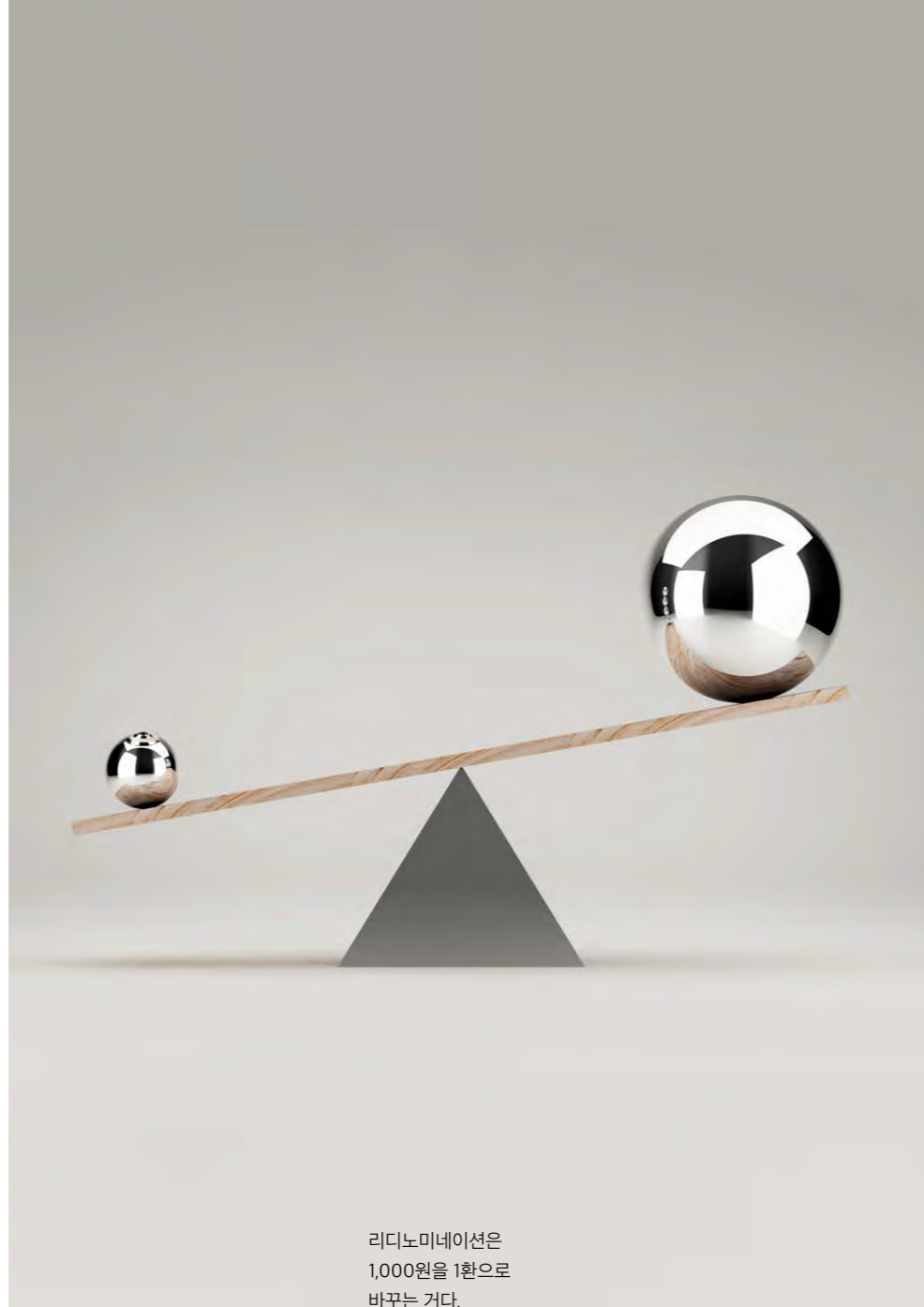
반올림과 올림, 필연적 인플레이션 발생

하지만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반대 의견도 상당하다. 일단 원화의 대외신인도를 끌어올린다는 주장에 대한 회의론이다. 한 국가의 통화가치는 해당국 경제 펀더멘털에 좌우되는 것이지 환율 자릿수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새로운 화폐를 찍어내는 주조 비용 외에도 금융권과 기업은 현금인출기(ATM)를 비롯한 기존 기기와 회계 프로그램을 교체해야 한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새로운 화폐시스템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성 저하는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화폐개혁으로 검은돈을 끌어낸다는 발상 자체가 옛날 사고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요즘 지하자금들은 이미 상당수 합법화(?)를 추구해 어설픈 화폐개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무엇보다 리디노미네이션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반올림과 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끝 자릿수를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전체 가격을 올린다는 것. 예를 들어 1000분의 1 리디노미네이션을 한다면 920원은 0.92환이 아니라 1환이 되고, 9,500원 하는 국밥 가격은 바로 10환으로 매겨진다. 9억 7,000만 원의 아파트 가격은 이론상 97만 환이 돼야 하지만 현실에선 100만 환으로 책정되기 쉽다. 이처럼 자연스러운 인플레가 나오는 것이다.

'화폐적 환상'에 따른 일시적 경기반등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우회적인 화폐개혁을 실시했는데 바로 2009년에 탄생된 5만 원권이 다. 리디노미네이션을 고액권 발행으로 돌린 것이다. 누구나 느끼는 거지만 5만 원권은 공식적인 경조사비 인상을 초래한 트리거였다. 또 다른 방식의 인플레가 만들어진 것인데 이렇게 되면 명목적으로 표기되는 경제지표도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10~2011년 한국 주식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당시를 돌아보면 '차(자동차)/화(화학)/정(정유)'이라고 해서 이들 주가가 급등하면서 코스피를 끌어올렸는데 이 기반에는 5만 원권에서 촉발된 인플레이



리디노미네이션은 1,000원을 1환으로 바꾸는 거다. 이걸 1000분의 1을 한 것이고, 100분의 1을 하면 1,000원은 10환이 될 것이다. 화폐개혁에는 모양을 바꾸거나 고액권을 발행하는 것도 있지만 역시 리디노미네이션이 가장 핵심이다.

화폐나 채권, 주식 등의 액면금액
Denomination

션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 무엇보다 리디노미네이션은 사용자(국민)들에게 일명 '화폐적 환상'을 준다. 가령 오는 7월 1일 '1000대 1' 리디노미네이션이 발표됐다고 하자. 10,000원 하던 물건은 10환에, 1,000원짜리는 1환에 팔리게 된다. 과자 한 봉지에 2환이라고 해보자. 2,000원에는 한봉지도 망설이지만 2환에는 2봉지를 산다. 당연히 수요는 증가하고 '수요-공급에 따른 가격이론'에 따라 물가는 오른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8억 원 하는 집값이 10억 원으로 상승하기는 힘들어도 80만 환 하는 집값이 100만 환으로 튀어 오르는 수월하다. 마치 주식에 있어 액면분할을 떠올리면 된다. 주가를 낮추는 대신 주식수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지만 1만 원에서 100원으로 내려간 주가가 매우 싸 보인다. 화폐개혁을 추진했던 국가들이 초기에 일정 부분 경기부양 효과를 얻은 것도 바로 이 '화폐적 환상' 때문으로 한국 경제에도 단기적으로 부양효과를 줄 수 있다. 특히 지하자금(검은돈) 경우 세무조사 등을 피해 소비를 늘리거나 극단적으로 실물자산에 올인할 수 있어 단기간 투자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도 나온다.

리디노미네이션과 부동산

그렇다면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 당국에서는 아직 공식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게다가 다

수의 전문가는 현 상황에서 정말 리디노미네이션이 단행된다면 결국 부동산이 큰 혜택을 받을 거라고 분석한다. 현재 한국 경제 산업구조를 보면 부동산에 유동성(단기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SNS 등을 봐도 '강력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다. 아예 '화폐개혁하면 결국 부동산만 또 오를 것이고 심각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올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돈이 계속해서 부동산으로 몰리게 된다면 모든 경기 부양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부담도 상당히 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화폐개혁 이야기가 많아지는 건 역시 '경기부양'에 대한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현재 한국은행은 화폐개혁은 물론이고, 금리인하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 경제 상황을 보면 어떤 식이든 대대적인 경기부양 정책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럼 앞으로 화폐개혁은 어떻게 될까. 필자는 역설적으로 화폐개혁과 관련해 '부동산'이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집값이 버티고, 사람들의 수요가 식지 않은 이상 화폐개혁을 단행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개혁 논의가 구체화된다면 기억할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이다. 금고에 둔 현금이 어쩌면 가장 수익성 낮은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하겠다. WIN CLASS



베트남 투자 열풍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우리 경제는 전통적인 투자처인 부동산 시장의 경색과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장기화로 인해 주식 시장의 전망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새로운 투자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듯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근 크게 대두되고 있는 움직임 중 하나가 베트남 투자 열풍을 꼽을 수 있다.

Words 박정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우리가 대안 투자의 대상으로 베트남에 주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1980년대 중반부터 자국 경제를 개방하려는 베트남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이라는 과거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1992년 수교를 통해 '과거를 접고 미래를 지향한다'는 합의의 뜻을 했고, 2012년 FTA 협상 개시를 통해 양국 간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해 왔다.

그 결과, 현재 베트남은 한해 300억 달러가 넘는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 추이를 살펴보면, 베트남은 2014년 한국의 6위 수출국이었으나 2015년 4위 그리고 2017년에는 중국, 미국에 이어 3위 수출국으로 발돋움했다. 양국 무역관계는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2020년 베트남은 미국을 뛰어넘어 한국의 2대 수출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양 국가 간의 교역량이 증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의 변화를 직·간접적으로 접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는 다시 베트남 투자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 투자에 주목하게 만드는 거시경제적 요인

현재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베트남 투자에 주목하게 된 것은 단순히 베트남 관련 정보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베트남이 매력적인 시장인 이유는 인구구조, 지리적 이점, 소득수준 증대 등 다수의 긍정적인 요인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베트남의 총인구는 약 9,500만 명으로 세계 15위의 인구 대국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 또한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다. 현재 베트남 총인구의 50%가 30대 미만으로 소비 활동이 왕성한 20~3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인구층이 두터운 구조다.

지리적 위치 또한 베트남은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유발할 긍정적인 요인이 다분하다.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여 동



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를 잇는 거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와의 물리적 연결과 기타 국가들과의 해상 연결은 베트남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실제 베트남 스스로도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강화하기 위해 아세안 경제 공동체(AEC) 출범과 FTA 등 글로벌 무역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과의 협력으로 추가적인 성장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경제 규모는 태국의 1/2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 증가와 제조업 성장 등으로 연평균 6.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포스트 차이나'라 불릴 정도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작년만 하더라도 베트남 GDP 성장률은 7.08%인데 이는 동남아 최고 수준으로 200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상에서 열거한 일련의 사실들에 주목하여 최근에는 일본과 한국, 중국 자금이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2018년 112개 국가가 베트남에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베트남 투자의 열풍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을 떠난 자금이 베트남으로 추가적으로 유입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에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조사업체인 IHS 마킷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베트남이 중국을 대신하는 세계의 공장으로서 떠오르고 있다고 주목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을 피해 공급사슬을 다변화함에 따라 중기적으로 베트남 등의 국가에 해외 직접 투자를 더 많이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한 바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국 내 있던 많은 공장이 일시에 베트남에 진출할 경우 공단 임차료가 상승, 임금 상승, 인력난 등 베트남 진출 관련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베트남 투자 형태 분석

국내 투자자들이 현재 베트남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행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중 하나가 부동산 투자다. 2015년 7월 1일 개정된 주택법과 2015년 12월 10일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일부 제약 조건은 있지만, 베트남 입국 승인을 받은 외국인과 해외 기업의 주택 구입이 가능해졌다. 현재 국내 투자자들은 은행이나 증권사 프라이빗뱅킹(PB) 센터 등을 통해 베트남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홍콩 등과 함께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위 5개국에 해당한다.

오피스 시장의 경우, A급 오피스 신규공급은 없었으며, B급 오피스만 작년 한 해 3,600m²가 신규



현재 국내 투자자들은 은행이나 증권사 프라이빗뱅킹(PB) 센터 등을 통해 베트남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홍콩 등과 함께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위 5개국에 해당한다.

공급된 상태이며, 평균 월 임차료는 m²당 23.4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10.8% 증가한 수치다. A, B급 오피스 공실률은 각각 5.1%, 1.8%로 2014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상가 역시 베트남 내수소비시장 성장 및 식음료 부문 수요가 확대되면서 상가부동산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식음료(F&B) 부문의 상가부동산 임대 비중은 2015년 약 19%였으나 2018년 31%까지 확대된 상태다. CBRE Vietnam에 따르면 2018년 호찌민시 신규공급 아파트 m²당 가격은 1,714달러로 전년보다 10% 증가하였다. VN지수는 2017년 50%가량 급등하며 아시아 신흥국 중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9% 정도 하락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반등한 상태이다. 이는 외국인 소유 한도 폐지, 호찌민증권거래소(HOSE)와 하노이증권거래소 합병 추진 등 베트남 금융당국의 증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 투자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에프앤가이드가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관련 16개 펀드 설정액은 1조 5,608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만 660억 원이 유입됐고 6개월 기준으로는 1,709억 원의 뭉치돈이 몰렸다. 이는 중국, 인도 등 여타 글로벌 펀드의 자금 유입에 비해 크게 두드러진 수치다. 베트남 펀드의 평균 수익률 역시 약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베트남 투자 전망

국제통화기금(IMF), 월드뱅크(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주요 글로벌 경제기관들 모두 향후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6% 중반대를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베트남의 무역 구조는 중국, 한국 등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 및 가공해 미국, EU 등 선진국으로 완제품을 수출하는 구조를 띠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 왔던 중국을 일정 부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은 단기적인 경기 변동 요인과 정치적·정책적 불확실성 요인을 극복할 만한 근원적인 호재임이 분명하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베트남에 주목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WIN CLASS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핀테크냐 테크핀이냐

‘핀테크(금융기술)’ 또는 ‘테크핀(기술금융)’으로 대표되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 금융사가 정보기술(IT)을 접목하는 핀테크를 넘어 테크핀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게 최근 금융권의 화두다. 테크핀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고안한 신조어다. 기술(Technology)과 금융(Finance)의 합성어로 IT 기업이 주도하는 금융혁신을 일컫는다. 그만큼 금융산업에서 IT 경쟁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테크핀의 급부상은 금융권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Words 정지은 한국경제신문 기자

테크핀의 급부상

테크핀 시대를 이끄는 대표 주자로는 카카오페이가 꼽힌다. 한 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를 두고 ‘공포’라고 했다. 그는 “요즘 모든 금융권을 통틀어 카카오페이가 가장 무섭다”며 “IT를 활용해 손쉽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는 편의성을 강점으로 앞세워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가 내놓은 체크카드는 지난해 1월 출시 후 1년여 만에 100만 장이 넘게 발급됐다. 통상 은행들이 체크카드 신상품 100만 장을 발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3분의 2가량 단축했다. 카카오페이 류영준 사장은 “테크핀의 영향력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3~4년 안에 금융생활 전반의 패러다임이 테크핀 위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께에는 카카오페이 플랫폼에서만 연간 100조 원의 돈이 흘러 다니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놨다. IT 기업이 금융권에 본격 등장한 것은 2014년 무렵이다. 카카오페이가 2014년 9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내놨을 당시에는 존재감이 크지 않았다. 그러다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의 이점을 활용해 송금, 인증, 청구서

등 생활금융 서비스를 확대했다. 지난해엔 체크카드 발급, QR코드 결제 등 오프라인 결제 사업까지 뛰어 들었다. 그동안 은행이나 카드사들이 주로 활동했던 영역에 파고들기 시작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에서 지문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2~3초 만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결제가 이뤄진다. 체크카드를 쓰면 사용 실적이 카카오톡 알림으로 실시간 무료 제공된다. 이런 편의성에 힘입어 카카오페이는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은 20~40대를 중심으로 이용자를 늘렸다. 카카오페이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2,600만 명을 넘어섰다. 카카오페이뿐만이 아니다. 삼성전자가 개발한 결제플랫폼 삼성페이를 비롯해 네이버페이(네이버), 페이코(NHN) 등도 테크핀 대열에 가세했다. 여기에 2017년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하면서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통한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산됐다. 이후 주요 은행에서도 모바일 뱅킹 활성화에 공들이면서 핀테크 경쟁이 치열해졌다. 최근에는 자산관리, 투자 영역에서도 IT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졌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3월부터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뱅킹존'을 일부 영업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경쟁 치열

은행, 카드사 등 국내 금융사들은 이 같은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실제 고객들이 핀테크 서비스에 보이는 긍정적인 반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삼성페이는 스마트폰을 매개로 금융시장에 파고 들었다. 스마트폰 앱에서 결제 비밀번호를 누르고, 계산대 단말기에 갖다 대는 것만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기존 은행이나 카드사는 시도하지 않던 새로운 방식이다. 삼성페이의 누적 결제 건수는 지난해 8월 13억 건을 넘어섰다. 2015년 출시 후 3년 만이다. 삼성페이 가입자 수는 지난해 3월 1,000만 명을 돌파했다. 누적 결제금액은 18조 원을 넘겼다.

삼성전자도 카카오페이처럼 간편결제 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에서 카드 발급 라이선스가 있는 회사와 손 잡고 '삼성페이 선불카드'를 출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페이 결제 빅데이터를 토대로 금융상품을 추천해 중개료로 수익을 올리는 형태의 신사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크핀으로의 무게 중심 이동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온라인에선 네이버페이(네이버)와 엘페이(롯데), 11페이(11번가) 등 각 유통업체의 간편결제 시스템이 자리를 잡고 있다. 자산관리 앱 '뱅크샐러드', 모바일 간편송금 서비스 앱 '토스' 등은 주요 금융사와 제휴를 맺고 제공 서비스 영역을 넓히는 중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1월 선보인 투자서비스를 펀드, 국내외 주식, 채권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고객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기술이 금융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형태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은행권은 올해 최대 사업과제로 디지털 전환을 꼽는다. 테크핀 시대에 대응하려면 변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IBK 기업·신한·KB국민·우리·KEB하나·농협 등 6개 국내 은행은 일제히 올해 주요 사업과제에 디지털 전환을 넣었다. 디지털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3월부터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뱅킹존'을 일부 영업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선 직원 없이 손바닥 정맥으로 실명을 확인하고 입출금통장, 체크카드, 적금 등을 가입할 수 있다. 보안카드 발급이나 비밀번호 변경 등 50여 개 업무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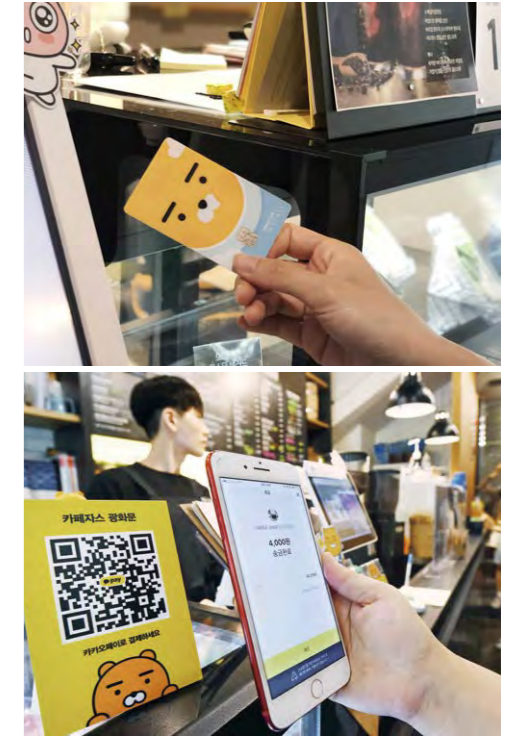
신한은행은 채용 방식을 디지털 인재 위주로 바꾸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디지털 전환 선포식'을 열고 2025년까지 총 2조 원 규모의 디지털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허인 국민은행장은 "대형 플랫폼 업체들이 은행의 최대 경

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숙명"이라고 말했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2020년까지 1,200명의 디지털 전문 인재를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사업 방식부터 인력 구성까지 디지털 측면에 더욱 신경 쓰고 있다. 한 은행 부행장은 "IT 기업 수준의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앞으로 은행의 경쟁력은 얼마나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금융·IT 경계 사라질 수도

핀테크 또는 테크핀의 성장세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혁신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금융 당국도 지난해 10월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낯은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데이터 활용, 혁신 기술 등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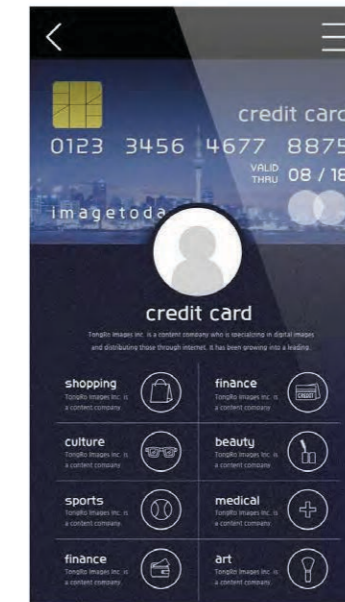
고객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기술이 금융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형태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사와 IT 기업 간 기술 제휴 사례도 많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핀테크 대신 테크핀이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쓰일 날이 머지않았다는 분석



도 나온다. 용어 순서가 뒤바뀐 것처럼 IT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제는 아이디어와 IT 기술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금융권에서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말했다.

급기야 금융사와 IT 기업의 경계가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물론 이런 추세만으로 기존 금융사보다 IT 기업의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다. 금융사는 위기관리 능력 등 그동안 금융 시장에서 갖고 닦은 노하우가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금융사들이 핀테크 또는 테크핀으로의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고객 편의성에 있다. IT 기업들이 선보인 간편 송금, 비대면 대출 등 주요 서비스를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이용하는 경우는 없다고들 한다. 고객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방안으로 IT의 활용은 중요하다. IT를 활용한 다양한 혁신을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사들이 핀테크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WIN CLASS



Economic and Financial Market Outlook

3분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3분기에는 익숙한 악재인 미·중 무역분쟁과 경기 둔화 국면이 나타나는 가운데 익숙한 호재인 미·중 무역협상 및 실적 개선 기대가 반영되면서 한국 경기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판단한다.

Words IBK투자증권 투자분석부

한국 경제 반등하겠지만 체감하긴 어려울 전망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하면서 불안감은 더 높아졌다. 소비를 뒷받침하는 소득과 고용 여건도 부진하고, 보호무역주의로 글로벌 교역 환경이 악화되며 수출과 설비투자는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가 바닥을 찍었다는 기대도 나타나고 있다. 먼저 한국의 OECD 경기선행지수가 반등한 것이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지표다. 한국의 가계와 기업의 체감경기지수와 수출선행지수도 연말과 연초를 기점으로 반등했다. 각종 경기부양책이 발표되는 것도 경기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데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과거에도 경기 저점 전후로 각종 경기부양책이 등장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6.7조 원의 추경을 발표하면서 성장을 하락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올해 재정지출 계획을 작년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한 가운데 상반기 중 재정집행 목표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했다. 글로벌 여타 국가들도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의 최대 수출 상대국인 중국이 감세와 인프라투자,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기대를 높이는 원인이다. 한국의 두 번째로 큰 수출 상대국인 미국 경제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으로 한때 침체가 불거지기도 했지만,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한국 수출 경기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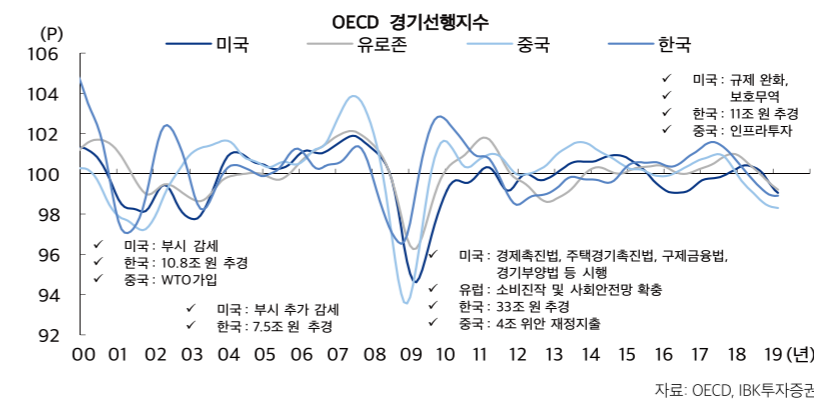
한국 경제가 1분기를 저점으로 올해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반등의 폭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2.4%로 작년의 2.7%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경기부양책 효과의 한계와 각종 불확실성 요인(미·중 무역분쟁,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 탈EU 문제 등), 감세정책 효과의 약화에 따른 미국의 수요 둔화 등은 한국 경제성장률의 개선폭을 제한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 주체들의 체감경기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분배 측면에서 가계 부문이 소외되고, 이로 인해 내수 부문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구조적 문제도 체감경기 개선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한국은행이 움직일 수 있을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쉽사리 없어지지 않고 있다. 연초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채권시장을 흔들었다면, 4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후에는 한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했다. 한국은행이 1월에 이어 4월 경제전망을 통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고, 호주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및 브라질 인하 등 신흥국의 인하 가능성이 함께 불거졌다. 비록 한국은행은 인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채권시장은 기대를 바탕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3분기에도 펀더멘털 우려를 바탕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꾸준하겠으나, 상대적으로 시중금리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선 IBK투자증권은 2~3분기 글로벌 경제가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글로벌 경기 반등폭 역시 미미해 체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경기 사이클이 사라졌기 때문에 과거

<표 1> 각국의 OECD 경기선행지수와 경기 저점 전후의 주요 경기부양책



자료: OECD, IBK투자증권

보다 경기 반등세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시달 수 있는 것은 결국 정책이고, 시장에서 쉽게 기대하고 가격변수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통화정책이다. 한국의 경우 소액이지만 이미 추경을 발표해 올해 재정정책을 기대할 수 없고, 경기 자체의 모멘텀도 적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이 금리를 움직이는 거의 유일한 요인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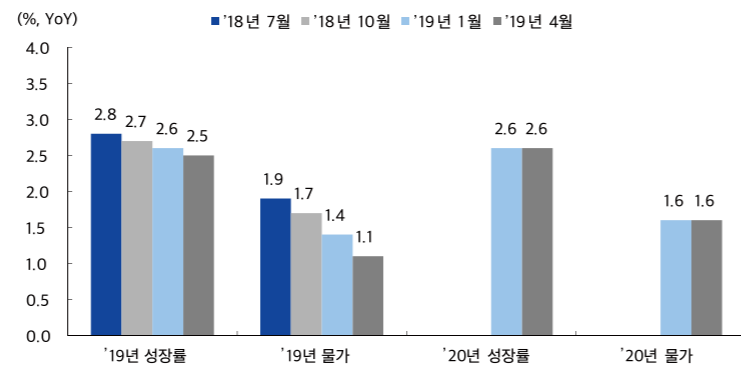
펀더멘털만 고려한다면 한국 기준금리 인하는 필요하지만, 한국은행은 그마저도 시그널을 쉽게 줄 수 없으므로 시중금리 하락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3분기 국내 단기금리는 역마진 부담으로 인해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장기금리의 경우 펀더멘털을 반영해 하락할 여지가 있어 커브는 추가로 플래트닝될 것이다.

한국은행이 인하를 차단하는 이유는 선제적인 행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뜰이나 경기의 진폭이 줄어들어 모멘텀을 찾기 어려워진 국면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금융시장이 정책에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약간의 시그널만으로도 나비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 최근 미국이나 유로존 등 기축통화국이 완화기조로 선회했으나 냉정히 말하면 기존의 긴축을 중지한 것이지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이미 경기 우려와 함께 사실상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이제 가능한 스텝은 완화정책으로의 본격적인 선회다. 그러나 4월 전망에서 볼 수 있었듯이, 한국은행은 여전히 하반기 경기 반등을 꿈꾸며 민간 기관보다는 긍정적인 성장률을 예상한다. 연준과 ECB에서 연내 완화정책의 시행 가능성을 시사하고, 한국은행도 국내외 경제를 부정적으로 전망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인하 시그널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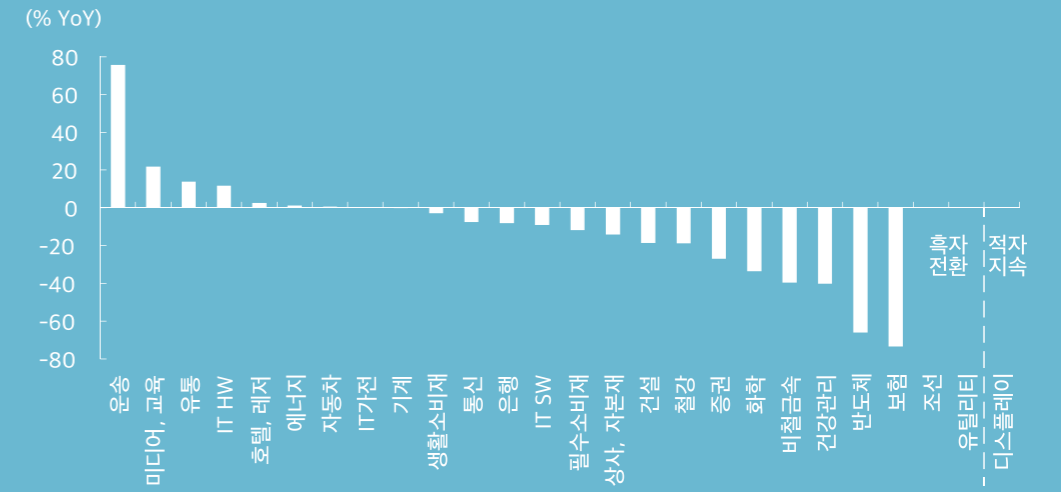
<표 2> 한국은행 경제전망 추이



자료: 한국은행, IBK투자증권

Stock Market Favorable Factor

<표 3> 섹터별 2019년 2분기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에 주목



주: W126 KSE 기준
자료: Quantwise, IBK투자증권

주식시장, 익숙한 호재와 악재

3분기에는 익숙한 호재와 악재가 나타나는 가운데 4분기에 가까워질수록 KOSPI는 완만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적에 대한 부진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하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역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경기 사이클의 진폭이 줄어들면서 크게 둔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 흐름이 한 번에 돌아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며 그 가운데에는 미국의 견조한 수요가 글로벌 경기의 하단을 지지해 줄 것으로 판단한다. OECD 경기선행지수 등 주요 선행 지표가 바닥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역시 완화될 것으로 판단한다.

기업 실적은 부진한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2분기 실적은 바닥을 기록한 뒤 3분기부터 경기 회복을 반영하면서 미약하지만 개선되는 모습이 예상된다. 2분기 기업의 실적 부진은 익숙한 악재이며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반등 및 이에 따른 실적 역시 익숙한 호재이며 기대감이 서서히 금융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협상 역시 장기화되는 가운데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 사이에 최종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경기가 양호하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를 이유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간을 벌면서 양국은 명분을 쌓은 뒤 최종적인 협상을 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최종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불확실성은 이어지겠지만 결국 3분기 말이 가까워지면 증시에 기대감이 반영되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2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운송, 미디어·교육, 유통, IT하드웨어 등의 업종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인 KOSPI의 기업 이익이 둔화되는 가운데 위 업종에서는 이익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다.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시장은 언제든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3분기부터는 소폭이나마 경기 개선과 함께 기대감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다시 위험자산에 대한 관심을 서서히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 WIN CLASS

자산관리 전문가가 직접 중소기업을 방문해 근로자들에게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자산관리 클래스'. 지난 5월 16일에 진행된 찾아가는 자산관리 클래스는 남방CNA주식회사 직원들에게 연말정산 하는 방법과 자칫 놓칠 수 있는 연말정산 팁 그리고 2019년 새롭게 바뀐 내용 등 연말정산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Words 박영화 Photographs 정우철

찾아가는 자산관리 클래스, 남방CNA주식회사 A부터 Z까지, 연말정산에 관한 모든 것!



13월의 보너스일까? 13월의 폭탄일까?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 직장인들은 1년 동안 낸 세금 가운데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계산하며 설레곤 한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13월의 보너스가 되기는커녕 되레 세금을 내야 하는 폭탄이 되기도 한다.

이날 강의를 맡은 박선희 세무사는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로 불릴 만큼 직장인들에게 중요한데도 무심하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며, “조금의 관심을 갖는다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절세할 수 있는 기회이니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자 30여 명의 남방CNA주식회사 직원들이 수첩과 펜을 꺼내 들고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강의에 집중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알아봤다.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에 대한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연말정산’이라고 말한다. 연말정산을 계산하는 방법은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차액을 납부해야 하고,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공제 항목

공제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근로소득 공제, 인적 공제, 4대 보험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이 있다. 다음으로 ‘세액공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금 자체를 깎아 주는 것으로, 근로소득 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기부금 공제, 월세 공제 등이 있다. 즉,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일수록 차감되는 세액도 커지기 때문에 고액 연봉자에게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하므로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다.

이날 강의에서는 집에 관한 직장인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주택 관련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박선희 세무사는 주택임차차입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로 나눠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FAQ 형식으로 설명했다.

19가지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남방CNA주식회사 직원들이 특히 집중했던 내용은 19가지에 이르는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상황별로 연말정산이 가능한 것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다 보니 직원들은 자신에게 해당하는 정보가 나올 때마다 수첩에 필기하는 열의를 보였다.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에서 몇 가지를 요약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때와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또는 현금(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결제할 때 공제액이 증대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야 가능하다는 조건이 뒤따른다. 또한 본인·부양가족의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안경원에서 미리 사용자 이름과 시력조정용으로 명시된 구입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박선희 세무사는 2019년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사항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확대되었고, 월세 세액공제율이 인상되었다. 또한 도서와 공연비의 지출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으며, 산후조리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었다. 올해부터 새로 바뀐 연말정산 사항이 소개되자, 직원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수첩에 필기하는 손도 빨라졌다.

유성열 사원은 “신용카드 공제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연말정산 정보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라며 강의를 만족해했다. 전덕기 사원도 “연말정산 시기인 2월에만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챙겨야겠어요. 오늘 강의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꼼꼼하게 챙겨야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며 소감을 남겼다.



고객사 평택지점

40년 한길을 걸어온 산업용 MRO 시장의 리더

남방CNA주식회사 김종혁 대표



철도, 고속도로, 항구 등의 기반 시설이 잘 구축돼 있어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경기도 평택. 이곳에 자리를 잡은 남방CNA주식회사(이하 '남방CNA')는 조선, 자동차, 철강, 섬유 등 국가 기간산업에서부터 첨단기술집약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필요한 화학제품 및 에어로졸을 주종으로 MRO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40년 동안 최고의 제품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길을 걸어온 남방CNA. 김종혁 대표를 만나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봤다.

MRO: 기업에서 제품 생산과 직접 관련된 원자재를 제외한 소모성 자재를 이르는 용어로 Maintenance(유지), Repair(보수), Operation(운영)의 머리글자에서 따왔다.

전문성을 살린 독자적인 브랜드

우리나라 산업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화학제품과 에어로졸 제품들. 40년 전만 해도 에어로졸은 외국에서 수입해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을 에어로졸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만든 건 남방CNA가 창립되면서부터였다. “아버지인 김승길 회장이 일본에 연수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일본 에어로졸 회사에 다니는 연구원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직접 에어로졸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1980년에 구로공구상가에 가게를 연 것이 남방CNA의 시작입니다.”

본격적으로 에어로졸 제품 개발에 나선 김승길 회장은 브랜드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생산제품부터 ‘나바캠 NABAKEM®’이라는 독자 브랜드를 만들었다. 현재 남방CNA는 김종혁 대표가 경영권을 이어받아 회사를 이끌고 있다. 김종혁 대표는 남방CNA의 제품이 최첨단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술개발과 연구활동에 집중했고, 그 결과 나바캠은 국내 에어로졸 시장에서 독보적인 브랜드로 성장했다.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남방CNA는 4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남방CNA를 토대로 (주)나바캠과 (주)남방에프씨(1, 2공장)를 운영 중이다. 제품의 종류는 무려 1,000여 개. 특히 금형에 묻은 이물질이나 사출 잔류물을 세척하는 ‘이형제’, 습기, 공기, 산, 염 또는 그 증기로부터 강력한 보호막을 형성하는 ‘방청제’ 등은 산업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객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남방상도(南邦商道)’를 운영철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품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고객의 불만과 요구를 받곤 하는데, 고객의 의견을 제품에 반영하려고 연구하다 보니 산업현장에 최적화된 제품이 완성되더라고요.”

남방CNA는 현재 특허 8건, 실용신안 등록 2건, 디자인 등록 1건, 상표 등록 24건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 중이다. 또 2003년 제33회 정밀기술진흥대회 대통령 표창, 2012년 대한민국 은탑산업훈장 수훈, 2013년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 수출유공기업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의 영광스러운 수상을 하기도 했다.

40년 동안 함께한 성공 파트너

최근 산업 전반에 걸쳐 경기가 주춤한 상황이지만 남방CNA는 첨단설비시설을 기반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고객의 입장에서 헤아릴 줄 아는 회사의 운영방식 덕분이다. “산업의 특성상 에어로졸 제품은 대량으로 생산해야 하지만 NABAKEM 중앙연구소에서



01 — 1,000여 종에 이르는 남방CNA주식회사의 제품들
02 — 태양광이 설치된 남방CNA주식회사 공장 전경

소량 다품종 체제로 고객의 요구에 응하고 있습니다. 원액제조에서부터 에어로졸 충전까지 모든 생산공정을 직접 관리하므로 품질의 안정성이나 신뢰성이 월등하다고 자부합니다.”

김종혁 대표는 남방CNA의 성공 스토리가 IBK기업은행과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회사가 올해로 40년이 되었으니까 IBK기업은행과 거래한 지도 그만큼 되었네요. 사업 초기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IBK기업은행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점장님을 비롯해 평택지점 직원들이 기업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줍니다. IBK기업은행이 남방CNA의 성공 파트너죠. 하하.”

남방CNA는 수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해외전시회에 참가해 제품을 홍보하고 바이어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해외 대리점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삼백만불 수출의 탑’을 받았으며, 2017년에도 ‘오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40년 동안 한길을 걸어온 남방CNA는 품질, 가격, A/S 등 모든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 중이다. 세계 어떤 기업과 겨뤄도 손색이 없는 제품을 선보이며 승승장구 중인 남방CNA가 더 넓은 세상에서 그 이름을 떨치게 될 것을 기대해본다. **WIN CLASS**

평촌WM센터

부드러움과 섬세함으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프트파워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단언했다. 그 말을 증명하듯 여러 분야에서 여성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는 요즘, 부드러움과 섬세함을 갖춘 소프트파워가 빛을 발하고 있다. 평촌WM센터는 바로 이런 소프트파워를 잘 보여주는 센터다. 진심을 담은 자산관리로 고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평촌WM센터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Words 박영화 Photographs 정우철

정민재 대리 <

> 김인자 센터장

강유정 계장
^

최현정 부센터장
^

> 강미향 과장



01

허허벌판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평촌의 옛 이름은 '벌말'이다. 벌말은 '벌판에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지하철 평촌역도 원래는 벌말역이었다. 농촌마을이었던 이곳이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에 신도시로 선정된 후부터다.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거대 상권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곳은 안양의 신중심 지역으로 변모해갔다. 김인자 센터장이 평촌지점에서 근무를 시작했던 2012년과 비교해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평촌이 이 정도로 변화한 곳이 아니었는데 도시첨단산업단지인 평촌스마트스퀘어를 조성하면서 도시의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더라고요." 평촌스마트스퀘어는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와 인근 지역에 조성한 산업단지로 많은 중견·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다. 특히 IT, 바이오 등 최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대다수이며, 젊은 자산가들이 평촌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사실 2012년에 평촌PB센터를 개점했다가 신규고객을 유치하는 게 쉽지 않아 2014년에 폐점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와 자산가들의 니즈를 더 이

상 간과할 수 없었기에 남중지역본부와 본부 내 영업점의 협조로 평촌PB센터를 폐점한 지 5년 만인 2019년 5월 21일 평촌WM센터를 개점하게 되었습니다."

두터운 신뢰는 오랜 인연으로

그야말로 허허벌판이었던 평촌은 3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 경제적으로 안정된 중산층이 많이 사는 도시가 되었다. 그만큼 금융권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김인자 센터장은 신뢰를 기본으로 한 영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지점에서는 아무래도 VIP고객을 위한 맞춤형 관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WM센터에서는 VIP고객 한분 한분을 위한 전문적이면서 동시에 세심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추천할 때도 '나라면 이 상품에 가입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 뒤에 추천하라고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신뢰가 정말 중요합니다." 차분한 어조로 영업전략을 말하는 김인자 센터장의 목소리와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최현정 부센터장의 생각도 김인자 센터장과 다르지 않았다.

- 01 — 김인자 센터장을 비롯한 평촌WM센터 직원들
- 02 — 센터 곳곳에 장인이 만든 도자기가 장식되어 있다
- 03 — 상담실에서 회의 중인 평촌WM센터 직원들
- 04 — 센터장실과 복도 등에 고객이 선물한 그림 작품이 걸려 있다

"신규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진심이 담긴 소통은 필수입니다. 고객뿐만 아니라 본부 내 27개의 영업점과의 신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금융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겠죠. 센터 가족 모두 금융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WM센터에서는 재테크를 비롯해 경제 동향을 원스톱으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해야 종합적인 사고와 능수능란한 상담이 가능하다. 평촌WM센터 모두는 풍부한 금융지식은 물론 신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팀워크,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좋은 실적을 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평촌WM센터를 '출근하고 싶은 일터'로 만드는 것이다. 김인자 센터장은 직원들에게 되도록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 높여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실적을 내야 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업무를 하는 은행원에게 스트레스는 때려야 땔 수 없다.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겠지만,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나 고민을 함께하는 동료와 나누면 이보다 더 좋은 힐링이 있을까. "지난 1월에 센터로 발령받아 왔는데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개점 준비로 바빴지만 시간을 내서 센터 가족

들과 남이섬을 다녀왔어요. 맑은 공기도 마시고 대화도 많이 했는데,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남이섬에서의 시간을 잊지 못하는 정민재 대리처럼 김인자 센터장도 평촌WM센터의 팀워크가 정말 좋다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언제나 앞장서서 파이팅을 외치는 최현정 부센터장을 비롯해 어떤 일이든 든든하게 해내는 강미향 과장, 친절하고 상냥한 정민재 대리, 센터의 분위기 메이커인 강유정 계장까지, 제가 정말 좋은 팀원을 만났습니다. 이 직원들과 함께라면 '고객 행복'이라는 우리의 목표도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원들의 파워가 결국 센터의 파워가 되는 거니까요."

지난 5월 21일 개점한 평촌WM센터. 센터 곳곳에 장인이 빚은 도자기와 고객에게 개점 선물로 받은 그림 작품을 전시해 센터의 분위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놓았다. 김인자 센터장은 고객이 선물한 그림 앞에 서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각오를 다졌다.

"이렇게 멋진 작품을 센터에 걸어들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도자기처럼 저희도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할 생각입니다. 평촌 내 많은 기업과 자산가들이 평촌WM센터와의 인연을 맺고 오래도록 그 인연이 이어지도록, 또 센터를 통해 고객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직원들을 이끄는 김인자 센터장과 끊임없이 자기계발 중인 평촌WM센터 가족들이 있기에 '고객 행복'이라는 목표는 결코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부드러움과 섬세함으로 고객을 대하는 진정한 소프트웨어! 최고의 금융인들이 모여 만들어낸 최고의 센터, 여기가 바로 평촌WM센터다. WIN CLASS



Maldives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모든 걸 할 자유

몰디브

하나의 섬에 하나의 리조트가 들어선 곳.
완전한 자유, 온전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
천국이라는 이름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곳.
그곳은 바로 몰디브다.

Words: Photographs 최갑수(여행작가)



라군 : 섬을 둘러싸고 있는 산호가 죽으면서 산호의 잔해가 쌓여 만들어진 지형
리프 : 에메랄드빛 색을 띠는 라군과 반대로 에메랄드빛 바다에 점처럼 거뿔거뿔하게 보이는 곳

몰디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푸른 바다 위 신기루처럼 떠 있는 섬. 그리고 그 섬 하나를 온전히 통째로 차지하고 있는 리조트.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의 풍경에 가장 가까운 곳. 하지만 멀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거쳐 몰디브 말레공항에 도착하기까지 꼬박 하루가 걸렸다. 말레공항에 도착하기도 쉽지 않았다. 활주로에 착륙하기 직전 비행기는 급상승했다. 폭우와 거센 바람으로 '복행'을 지시받은 것. 할 수 없이 하늘을 약 1시간 30분 동안 맴돌아야 했다. 말레공항 대기실에 발이 묶여 기다리길 또 두 시간.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리조트로 가는 수상비행기가 출발했다. 몰디브에는 대부분 섬 하나를 리조트 하나가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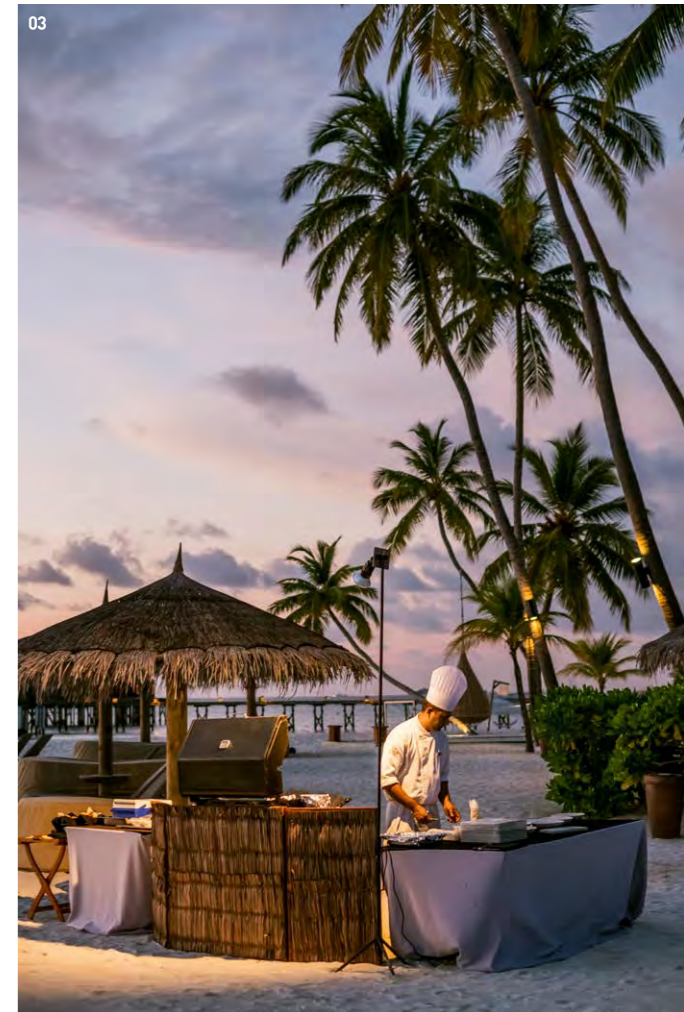
째로 차지하는데 여행자들은 스피드보트(쾌속정)와 수상비행기 등을 이용해 목적지 리조트로 간다. 이번 일정에 머무르기로 한 리조트는 수상비행기로 약 25분 거리에 떨어진 콘스탄스 호텔 체인의 '할라베리'와 '무푸시' 두 곳이다. 몰디브는 엄격한 이슬람 국가다. 인구의 99%가 무슬림이다. 헌법은 '무슬림이 아니면 몰디브 시민이 안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몰디브인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극형에 처해질 수 있다. 관광객 역시 성경책을 갖고 다닐 수 없다. 돼지고기와 술은 당연히 금지. 수영복을 입을 수도 없다. 하지만! 리조트 내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수영복을 입고 돼지고기 요리에 와인을 마셔도 된다.



여행자를 압도하는 아름다운 풍경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도착한 콘스탄스 할라베리 리조트는 그간의 수고를 모두 날려 버릴 만큼 압도적인 풍광을 자랑했다. 너무나 찬란해 눈 뜨기가 힘들 정도로 아름다운 바다는 지금까지의 지독한 20시간의 여정을 2초 만에 포맷시켜버렸다. 배에서 내려 에메랄드빛 라군 위로 지어진 워터빌라로 가는 나무 데크 길을 걷고 있으니 몰디브에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세상에는 이토록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나는 서울에서 단지 살기 위해 아등바등 애쓰고 있었구나. 역시 인생의 목적은 일이 아니라 놀기 위한 데 있다. 일찍이 아시아를 탐험했던 마르코 폴로는 몰디브를 '인도양의 꽃'이라고 칭했다. 그냥 흔한 섬나라가 아니다. 해마다 백만 명이 코발트블루의 지상낙원을 경험하기 위해 몰려든다. 몰디브는 스리랑카 남서쪽으로 650km 지점 인도양 한가운데 뿌려진 산호섬 1,192개로 이루어져 있다. 몰디브를 '꽃의 섬'이라고 하는데 이는 몰디브 구역을 나누는 '아톨(Atol)'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고리 모양의 산호초 때문이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반지 고리 모양의 산호초 섬을 상상하면 된다. 이 거대한 산호초를 이정표 삼아 몰디브는 총 26개, 행정구역상으로는 19개 지역으로 구분한다. 몰디브는 섬 하나를 하나의 리조트로 개발하는 '아일랜드 1리조트'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모두 100여 개의 섬에 리조트가 들어서 있다. 콘스탄스 할라베리 리조트도 그중 하나다. 리조트에서는 오직 놀고먹고 쉬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다. 마을도 없고 시장도 없다. 여행객과 리조트 직원 딱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다. 하루 세끼 모두를 리조트에서 먹고 하루 종일 리조트 내에서 놀아야 한다. 스노클링과 윈드서핑 등 해양 레포츠를 즐기거나 하루 종일 백사장에 누워 책을 읽어도 좋다.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 돌고래 워칭을 해도 된다. 와인테이스팅을 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결코 지루

하지 않다. 시간이 가는 게 아까울 정도다. 하루만 더 있고 싶다는 마음이 날이 갈수록 커진다. 가장 즐거운 경험은 스노클링이다. 굳이 배를 타고 나갈 필요가 없다. 방문을 열고 나무계단 몇 개를 내려가면 된다. 워터빌라 앞에서 조금만 헤엄쳐 나가면 라군이 끝나고 리프가 시작되는 경계점. 리프는 해저 지면이 낭떠러지처럼 급격히 깊어지는 곳을 일컫는다. 멀리서 보면 갑자기 바다 색이 짙푸르게 변하는 곳이 바로 리프가 시작되는 곳이다. 이곳에 접어들면 산호 군락 속에 숨어 사는 작은 열대어와 리프 너머에 모여 있는 물고기 떼가 갑자기 다가온다. 바다 거북과 직접 눈을 맞출 수도 있다. 단 지켜야 할 수칙들도 있다. 산호초 밟기, 침전물 휘젓기, 해양 생물 만지거나 뒤쫓기, 물고기 먹이주기 등이 금지된다. 모두 한글로 안내된다. 리조트에서 무료로 빌릴 수 있는 스노클링 장비를 갖추고 있다. 가서 방 번호와 이름만 대면 아무 때나 빌릴 수 있다. 그마저도 귀찮으면 방 앞에 위치한 테라스에 있는 프라이



빛 인피니티 풀에 들어가면 된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만큼 넓어 굳이 리조트 메인 수영장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할라베리 리조트의 또 다른 자랑은 와인 테이스팅(시음)이다. 할라베리 리조트는 '2015 와인 스펙테이터 레스토랑 어워드(2015 Wine Spectator Restaurant Awards)'에서 인정 받은 와인 셀러(저장고)를 보유하고 있다. 호텔 내엔 두 개의 와인 셀러가 있는데 각각 1,000여 병의 와인을 보관하고 있다. 테이스팅은 유명한 소믈리에의 주도로 시작된다. 와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치즈, 허몽 등의 안주도 맛있다.

시간이 가는 게 아깝게 느껴지는 곳

콘스탄스 할라베리 리조트에서 스피드보트로 약 20분 떨어진 '콘스탄스 무푸시'는 '올인클루시브(all-inclusive)'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조트다. 술을 포함해 각종 음료와 스낵, 음식이 무료로 제공된다. 콘스탄스 할라베리와 같은 호텔



사이지만, 조금은 젊고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선착장에 내리면 입구의 작은 팻말이 시선을 잡아끈다. 'No News, No Shoes'라고 적혀있다. 천국으로 안내하는 표지판으로 이보다 적합한 말은 없는 것 같다. 리셉션에 도착하면 직원들이 신발을 담을 주머니와 슬리퍼를 갖다준다. 리조트 매니저는 슬리퍼도 번거롭다고 말한다. "맨발로 다니는 것이 제일 편하고 자유로워요. 천국은 신발을 신지 않아도 되는 곳이지요." 실제로 몇 시간만 맨발로 다니다 보면 신발이 거추장스럽기만 하다. 발에 밟히는 모래의 감각이 오히려 편하다. 뒀 일도 빨리 걸을 일도 없다. 햇살에 달궈진 길바닥이 뜨겁다면 곳곳에 놓인 물대야에서 바가지로 물을 발에 뿌리면 된다.

객실은 할라베리와 크게 다를 것 없다. 바다 위 떠 있는 수상 방갈로 형태의 '워터빌라'다. 할라베리보다는 작지만 그만큼 아늑하다. 테라스에 딸린 계단으로 내려가면 바로 바

✕ 여행정보

대한항공이 인천~말레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스리랑카의 콜롬보를 거치는 코스다. 콜롬보에서는 약 1시간 30분 대기한다. 싱가포르항공, 캐세이퍼시픽, 에어아시아, 카타르항공 등이 말레국제공항으로 연결편을 제공한다. 몰디브에는 말레 시내 시간과 아일랜드 시간이 있다. 말레 시간으로는 한국과의 시차가 4시간, 아일랜드 시간으로는 3시간이다. 리조트마다 적용하는 시간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콘스탄스 할라베리는 신혼 여행객에게 적합한 리조트다. 방 형태는 총 5가지다. 57개의 워터빌라, 11개의 패밀리 비치빌라, 9개의 비치빌라, 8개의 더블 스토리 비치빌라, 그리고 1개의 프레지덴셜 빌라가 있다. 모든 빌라에는 개인용 풀과 테라스, 발코니가 달려있고, 24시간 룸서비스도 제공한다. 무푸시는 할라베리보다 더 다양한 경험을 누리기에 좋다. 리조트 부지에 총 110채의 빌라가 있다. 비치빌라 24채, 워터빌라 56채, 시니어 워터빌라 30채가 있다. 무푸시의 가장 큰 장점은 '올인클루시브 패키지'다. 모든 식사와 미니바, 토텐바에서의 애프터눈 티 서비스와 시그니처 음료, 칵테일 등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 01 — 몰디브 콘스탄스 할라베리 리조트. 호화로운 리조트가 푸른 바다에 떠 있는 산호초 섬 하나를 통째로 차지하고 있다
- 02 — 보트를 타고 돌고래 워칭을 하고 있는 여행객들
- 03 — 해변에서의 식사. 해가 지고 노을이 내리면 몰디브에서 가장 낭만적인 디너타임이 시작된다
- 04 — 몰디브 콘스탄스 무푸시 리조트. 에메랄드빛 바다 위에 워터 방갈로가 떠 있다
- 05 — 몰디브의 해변. 이곳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느리게 흐른다
- 06 — 해변에 저녁이 왔다. 바다와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다
- 07 —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가장 가까운 풍경을 꿈꾸려면 단연 몰디브 아닐까. 이 섬에는 걱정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로 이어진다.

할라베리와는 또 다른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오후 6시면 해변에 자리한 '토텐바'에서 칵테일 클래스가 열린다. 바텐더가 자리를 세팅하면 누구나 가서 칵테일을 만들어 마실 수 있다. 밤에는 '만타바'에서 신나는 음악과 함께 파티가 열린다. 아찔한 볼쇼도 볼거리.

무푸시 리조트에서는 한층 더 짜릿한 스노클링을 해볼 수 있다. 리조트에서 배를 타고 약 20분가량 떨어진 섬으로 간다. 배가 멈추면 참여객들은 일제히 스노클링 장비를 갖춰 입고 깊이가 가능 안 되는 바닷속으로 뛰어들다. 산호초 사이를 다니는 니모(흰동가리)와 도리(블루 탱)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물고기. 어느새 바다거북이 눈앞에 다가온다. 1미터 가까이 되는 거북이 헤엄치는 모습은 마냥 신기하기만 하다. 하지만 거북에 손을 대는 것은 금물이다.

돌고래 워칭도 해볼 수 있다. 돌고래는 몰디브에선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물이지만 서울의 콘크리트 숲에서 온 여행자들에게겐 탄성을 불러일으키는 신비한 존재다. 배 옆구리를 따라 함께 달리는 돌고래를 보며 여행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른다.

몰디브에서의 일과는 이랬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붉은 아침 빛이 눈을 뜨게 만든다. 생수를 마시고 발코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발코니 앞은 바다. 발코니 끝에 바다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다. 계단에 앉아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해가 뜨는 걸 지켜본다. 이마가 붉게 물들 때쯤이면 작은 상어 몇 마리가 다가와 놀다 간다. 그리고 다시 침대로 돌아와 잔다. 아침 9시면 아침을 먹고 오전 내내 스노클링을 한다. 점심을 먹고 낮잠. 오후에는 다시 스노클링을 하든지 마사지를 받는다. 늦은 오후에는 잘 꾸민 오징어와 참치를 먹으며 샴페인을 마신다. 그러다 보면 해가 진다. 저녁이 되면 해변이 보랏빛으로 물들고 차가운 맥주를 마신다.

이 모든 걸 내 비자카드가 하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살면서 이런 날도 며칠 쯤은 있어야지. 어쩌면 여행은 생을 잇는 그리고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WIN CLASS



매종 에르메스는 파리 본점의 포브르 생토노레를 시작으로 2000년 뉴욕 매디슨가, 2001년 도쿄 긴자, 2006년 서울 도산공원 그리고 2014년 상하이 중심부인 황푸구까지 전 세계에서 5곳에서만 만날 수 있다. 매종 에르메스 도산 파크 1층은 남성 컬렉션, 실크, 시계, 주얼리, 향수 등의 공간이고, 2층은 여성 컬렉션, 가죽 제품, 패션 액세서리 등을 선보이고 있다.

HERMÈS



가방 그 이상의 가치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에서 탄생한 명품 가방, 당신의 패션에 우아한 아름다움을 더해줄 것이다.

Words 박영화

화려하고 고귀한 이름 에르메스

사륜마차와 마부 그리고 원형 안에 'H'자가 박힌 로고로 상징되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 에르메스는 1837년 티에리 에르메스가 말안장과 마구(馬具) 용품을 만들어 팔면서 승마를 즐기는 왕족, 귀족 사이에서 인지도를 얻었다.

1880년 티에리 에르메스의 아들과 손자가 사업을 이어받으면서 더욱 성장했는데, 특히 손자인 에밀 모리스가 사업차 미국에 갔다가 지퍼를 보고 1923년 처음으로 지퍼를 단 가방인 '볼리드백'을 선보이면서 에르메스의 가치가 높아져 갔다.

에르메스의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1935년 출시된 '켈리

백'과 1984년에 나온 '버킨백'이 있다. 독특한 잠금장치가 특징인 버킨백은 전문적인 과정을 이수하고 오랜 숙련 기간을 거친 장인의 손에서 만들어진다.

에르메스 가방은 질 높은 원자재와 수준 높은 장인이 만들어낸 제품으로 유명한데,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새들스티칭(Saddle Stitching)! 옛날 안장을 꿰매 때 쓰던 독특한 박음질법인데, 이 방식이 에르메스 가방의 가치와 희소성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었다.

에르메스는 점점 사업 분야를 넓혀 현재 가죽제품을 비롯해 여성복, 남성복, 스카프, 타이, 향수, 시계, 문구류, 자기류, 은식기류 등의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여성에게 자유를 선물하다

샤넬

1910년 모자 상점으로 시작해 1913년 의상실을 연 가브리엘 샤넬이 1971년 사망할 때까지 58년 중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의상실 문을 닫은 시기인 15년을 제외하면 총 43년간 브랜드를 운영했다. 이 기간 샤넬은 팬츠 슈트, 트위드 슈트, 리틀 블랙 드레스 등 지금까지도 패션계에서 기억되는 수많은 아이템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코스튬 주얼리, 향수 등의 아이템을 추가하며 '탈남성주의', '여성 해방'이라는 자신의 철학을 이어갔다.

특히 1955년에 세계 모든 여성이 열광하는 '2.55백'을 출시했다. 가방을 선보인 1955년 2월의 날짜를 따서 2.55백으로 이름 지어진 이 백은 샤넬의 옷처럼 실용성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여성들의 가방은 대부분 짧은 손잡이만 달리고 어깨끈이 없어서 항상 손에 들고 다녀야만 했는데, 샤넬은 가방에 체인을 달아 여성들이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무엇보다 2.55백의 솔더 체인을 군인 가방에서 착안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샤넬 가방의 또 다른 특징은 두 겹의 천 사이에 솜을 넣고 누비질을 한 퀴팅 패턴인데, 다이아몬드 패턴을 표현한 이 방법은 지금까지도 샤넬 가방의 아이코닉으로 남아 있다.

CHANEL



LOUIS VUIT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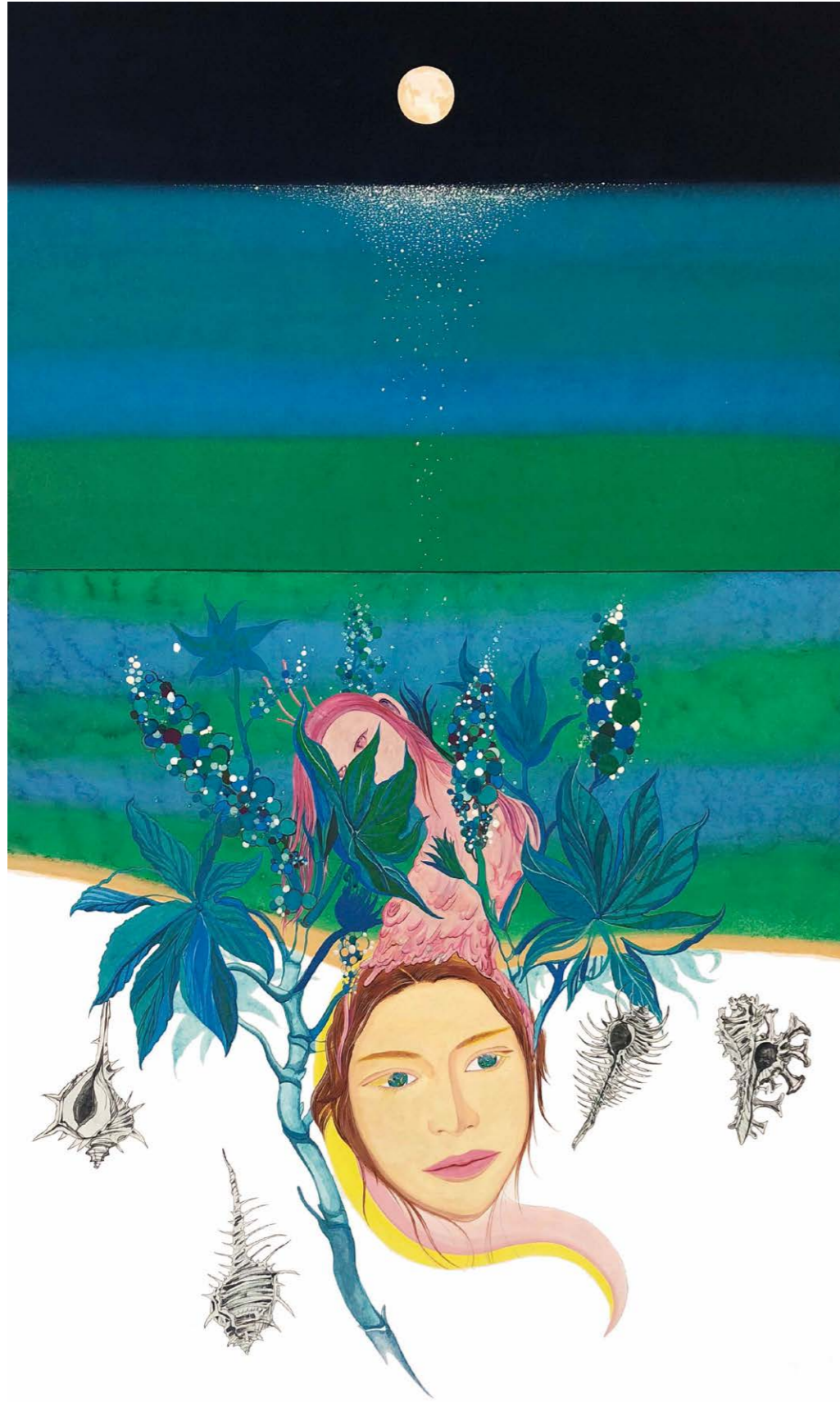
상위 1%를 위한

루이비통

1837년 16세였던 루이비통은 트렁크를 만드는 회사의 견습공이었다. 1854년에 그는 외제니 황후의 후원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파리에 최초의 매장을 열어 직접 제조한 여행용 가방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당시 여행용 트렁크는 여러 개를 쌓기 어려운 둥근 형태였고 매우 무거웠던 것에 착안해 루이비통은 1858년 사각형 모양의 가벼운 트렁크인 '그레이 트리아농 캔버스'를 만들었다. 이 트렁크는 프랑스 황후뿐만 아니라 원저공 부부, 어니스트 헤밍웨이 등의 저명한 고객이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트렁크의 성공으로 사업 확장이 필요하게 된 루이비통은 1859년 파리 중심부에 위치한 아니에르에 첫 번째 공방을 열었다.

1892년 루이비통이 세상을 떠나자 사업을 물려받은 아들 조르주비통은 1896년 모조품이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노그램 캔버스(Monogram Canvas)를 개발했다. 루이비통의 이름 첫 글자인 L과 V를 당시 유행하던 아르누보 경향의 꽃과 별무늬에 결합한 디자인이었다. 모노그램 캔버스는 루이비통 제품을 대표하는 디자인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제품에 회사 마크를 도입한 최초의 사례다.

1924년에 출시한 '키폴백(둥근 형태의 여행용 가방)'의 인기로 인해 키폴의 형태를 핸드백으로 제작해 1930년에 출시한 것이 '스피디백'이다. 스피디백은 바닥이 평평하고 위는 둥근 형태로 수납공간이 많은 손가방이다.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이 가장 좋아했던 백으로 알려졌으며, 거리에서 3초마다 볼 수 있다고 하여 일명 '3초백'으로 불릴 정도로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WIN CLASS



달의 길, 한지에 혼합재료, 90x150(cm), 2018

꿈꾸는 모든 이는 아름답다

김다령 작가의 작품은 대부분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느낌을 준다.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조금은 슬퍼진다. 밝고 화려한 색감의 그림 속에서 뒤틀리고 변형된 인간들의 모습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고 표현하는 작가의 시선은 한없이 따스하기만 하다. 이러한 작가의 시선이 힘들고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조용히 다독인다.

Words 한울 Artist 김다령 Photographs 고인순



김다령 작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꿈에 대하여

인간은 누구나 꿈을 꾸다. '꿈'이란 무언가가 되고 싶은 열망이기도 하고, 자신이 정한 목표에 도달하고픈 의지이기도 하며, 누군가에게 열렬히 인정받고 싶은 욕구이기도 하다. 내용과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이 모든 것들은 꿈으로 명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꿈을 꿀 권리가 있다. 인간은 꿈을 꾸며 성장하고 꿈을 통해 자신의 삶을 조금씩 구축해 나간다. 그리고 꿈은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버팀목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한다. 김다령 작가의 작품은 꿈꾸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람들에겐 무언가를 갖고 싶은 욕구가 있고, 다들 희망하는 게 있고, 되고자 하는 모습이 저마다 있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뤄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자신의 꿈을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각자의 삶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김다령 작가의 작품 속 대상들은 작가 자신을 비롯한 기억 속의 인물이다. 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에 뭉쳐진 결핍 덩어리일 때도 있다. 김다령 작가가 그려내는 인물은 일상 속에서 작가가 보고 느낀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때 느꼈던 감정을 통해 즉흥적으로 태어난다. 작품 속의 사람들 표정은 각자의 현실 속에 일그러져 있다. 이는 얼굴의 형태가 뒤틀려 있거나 몸이 변형돼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 같이 이상향을 꿈꾸며 그곳을 향해 응시하고 있다. 이 형상들은 작가가 느끼는 이 시대의 일상 속 슬프고도 아름다운 현대인의 표정이다.





01 — Protective coloration, 한지에 먹, 채색, 30x30(cm), 2015
 02 — 몽상가들, Korean paper on mixed, 24x27(cm), 2015
 03 — 마음에 봄과 겨울, 한지에 혼합재료, 30x30(cm), 2015

“사람의 형상은 일그러져 있지만 그들은 하나 같이 꿈을 향하고 있어요. 꿈을 좇지만 결국 완벽한 모습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대신 밝고 화려한 색감을 사용해 꿈꾸는 사람이 아름답고 희망적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제 작품을 본 사람들은 ‘슬프지만 아름답고, 그 아픔 속에서 희망을 얻는다’는 말을 해요. 그리고 ‘작품 속의 인물이 마치 자신 같다’는 얘기도 하고요.”

규정되지 않는 것들을 향해

김다령 작가는 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했다. 그러나 작가의 작품은 오롯이 전통적인 동양화로만 보이질 않는다. 그리고 작가지조차도 ‘동양화 작가’로 불리는 것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다. 장르든 분야든 그 어디에도 국한되고 싶지 않다는 게 작가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는 동양화 기법을 사용하지만 먹이나 물감 등의 재료로 표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땐 아크릴 물감이나 과슈 등의 서양화 재료를 혼합해서 쓰는 편이에요. 예전엔 전통적인 동양화 기법 작품과 퓨전적인 작품이 반반 정도였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동양화 재료만 가지고 작업을 하는 비율이 더 늘어났어요. 특히 먹물이나 한지의 날렵함이나 동양화 특유의 발색력이 더욱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작가의 이력은 독특하다. 패션이나 음악 등의 다른 분야와 콜라보레이션하면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하고 장르와 장르의 만남을 통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기도 한다. 패션쇼에서 오프닝 이벤트로 드레스에 그림을 그리는 일이나 국악과 현대음악이 믹스된 퓨전음악을 들으면서 즉흥적으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식이다. 정해진 방식이나 공식에서 아님 작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끌어내는 것. 이처럼 순간적으로 작가의 감성을 끄집어내는 즉흥적인 과정에는 몰입과 집중, 그리고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여기저기 적용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영역의 구분 없이 다른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가고 싶은 바람이 있어요. 그 어떤 그릇에 담겨도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고 해야 할까요. 아마 제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 변화를 거듭할 거예요.”

그녀, 꿈을 향해 나아가다

김다령 작가는 대학 2학년 때부터 한 갤러리를 통해 청년작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개인전까지 열었다. 다른 이들보다 어린 나이에 작품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지만, 반면 잃은 것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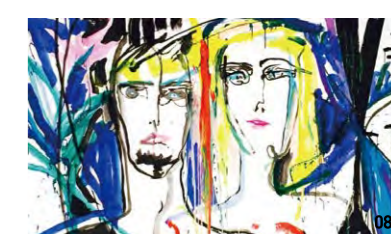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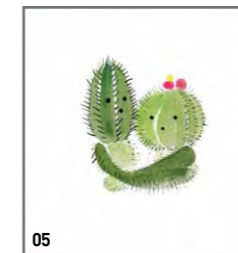
“어릴 땐 제가 유명한 작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 당시 뜨고 있는 작가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미술계와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술과 전혀 관련 없는 일들에 발을 들였어요. 사무직이나 비서직도 하고, 구청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그렇게 월급을 꼬박꼬박 받으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몸은 편안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2년여의 외도는 작가가 서야 할 자리를 정확하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어디에 자신의 열정을 쏟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했다. 경제적인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두려움을 느꼈던 유약한 마음을 확고하게 잡아준 계기도 되었다.

“예전에는 소위 잘나가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보다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는 다른 작가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도 컸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빨리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지금처럼 꾸준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저만의 작업을 하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생각보다 아름답지 못할 때가 많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도 한다. 예술이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로 건네듯,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크고 작은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싶다. 그리고 꿈꾸는 이들을 응원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싶다. 그게 바로 김다령 작가의 꿈이다. WIN CLASS

04 — 가끔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mixed media cp, 52x74(cm), 2018
 05 — 연인들, 한지에 혼합재료 30x30(cm), 2015
 06 — Trick, Korean paper on mixed, 24x34(cm), 2014
 07 — 눈의꽃, 한지에 채색, 16x22(cm), 2019
 08 — 18분 동안의 시간 LOVE, 동양화 라이브 페인팅, 120x180(cm), 2016



BOOK & MOVIE

‘수단’ 아닌 ‘목적’으로서의 개의 삶은 어디 있나

지난해 11월 국내 개봉한 영화 <베일리 어게인>(감독 라세 할스트롬)은 미국의 유명작가 W. 브루스 카메론의 소설 <도그 퍼포스>(A Dog's Purpose-개의 목적)를 토대로 한 드라마다. 원작소설은 52주 동안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른 화제작이다. 국내에서는 2014년 반려동물 전문 출판사인 페티앙북스에서 <내 삶의 목적>이란 제목으로 출간했다가, 지난해 <베일리 어게인>이라고 제목을 바꿔 개정판을 냈다.

Words 김중면 콘텐츠랩 씨큐브 수석연구원, 전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



수석논설위원 © 페티앙북스



01 '베일리'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베일리 어게인>이나 <내 삶의 목적>이라는 변형된 제목보다 <개의 목적>이라는 원어 제목이 더 직정적(直情的)으로 다가온다. '개의 목적이 도대체 뭐가' 하는 호기심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이 소설과 영화는 모두 반려견의 환생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다룬다. 전생의 기억을 간직한 채 환생을 거듭하는 주인공 개 베일리는 마음이 통하는 '영혼의 친구'이자 첫 주인인 이든을 만나 여느 개의 동물적 삶과는 사뭇 다른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야기는 전지적 개의 시점에서 개의 입을 통해 전개된다. 견생(犬生) 1회차 베일리는 셰퍼드 경찰견 '엘리'로, 소울메이트 웰시코기 '티노'로, 다시 떠돌이 방랑견 세인트 버나드 혼종견 '버디'로 성별과 이름, 직업까지 모두 다르게

태어나지만 단 하나 영혼만은 변함이 없다. 베일리가 윤회의 삶을 통해 확인하는 개의 목적은 한마디로 '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즐겁게 살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서 구해주고, 사랑하는 이들을 알아주고, 지나간 일로 슬픈 얼굴 하지 말고, 다가올 일로 얼굴 찌푸리지 마. 그저 지금을 사는 거야. 지금 이 순간을." 개의 목적이란 결국 인간에게 한없이 충성스러운, 순종과 긍정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인간이 호모사피엔스, 즉 지혜로운 존재라면 개는 카니스 파밀리아리스(Canis Familiaris), 그러니까 인간에게 친숙한 존재다. 베일리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나듯 개의 존재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는 것, 인간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베일리 어게인>은 허구지만 반려동물의 삶에 대한 만만찮은 철학적 고찰의 단서를 제공한다.

02 특별한 운명, 소설과 영화에서의 베일리

미국은 '반려견 천국'이다. 최근 미국 반려동물산업협회(APPA)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가정의 68%가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운다. 미국에서는 반려동물이 죽으면 천국에 가게 해달라며 추모예배를 부탁하는 일이 많아 '목사는 반려동물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드는 교회도 늘고 있다고 한다. 소설 <도그스 퍼포스>가 출간된 후, 미국의 애견인들 사이에서 '베일리 없이' 현상이 유행처럼 번진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영화의 토대가 된 원작이 있는 경우, 우리는 은연중에 이를 의식해 서로 비교해 보게 된다. 하지만 선부른 교차워기는 영화에 대한 온전한 몰입을 방해하기도 한다. 소설과 영화는 그 문법이 다르고 강조점도 다르다. 영화가 베일리와 이든으로 표상되는 개와 인간의 우정을 그린 한편의 '동화'라면, 소설은 보다 실제적이고 광범위한 개의 삶의 전모를 보여준다. <베일리 어게인>에 등장하는 개, 특히 베일리는 한낱 '동물로서의 개'가 아니다. 영혼을 가진 개, 좀 과장하면 심오한 영적 아우라를 지닌 개다. 그러나 거기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 베일리라는 특별한 개의 운명,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택한 길이다. 이는 개로서의 삶의 첫발을 떤 어린 베일리의 말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의 손길을 벗어나 떠돌이로 살면 이렇게 배고프고 비실대는 꼴이 되는 것이었다."



© GOOD E 영화

03 개의 환생을 통한 생명의 진정한 의미

소설과 영화에 드러난 개의 목적, 혹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다분히 인간이 의도한 것이다. 개가 인간을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전제 자체가 인간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이기심이 아닌가. <베일리 어게인>에 어떤 궁극적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까. 인간과 동물의 변함없는 우정, 전지적 화자이자 관찰자로서의 개의 시각, '동물을 넘어서는 동물'로서의 개의 영성... 이런 것들은 모두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한 허구적 요소에 불과하다. 자명한 것은 베일리의 경우에서 드러나듯 생명은 신비롭고 경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영화를 볼 때 흔히 감독의 연출, 배우의 연기, 영상미의 아름다움 등 여러 가치를 따져가며 본다. 하지만 <베일리 어게인>에서는 굳이 그런 절박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 '개의 환생'이라는 색다른 소재 외에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일까. 다만 이 영화와 소설로 말미암아 생명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를 가졌다면 그것은 분명 소득이다. WIN CLASS

IBK기업은행이 추천하는 이달의 추천 펀드

(2019년 4월 기준)

공격투자형 2등급 한화글로벌리얼에셋 키움글로벌멀티너티브 미래에셋베트남증권	적극투자형 3등급 IBK코스피200인덱스 유리글로벌거래소	위험중립형 4등급 트러스트다이내믹코리아50 삼성배당주장기 KTB스마트시스템트레이딩 트러스트코리아외화채권(H) 한국투자코스피슬루션 KBPIMCO글로벌인컴셀렉션
안정추구형 5등급 마이다스단기국공채공모주 교보약사Tomorrow장기우량 칸서스튼튼단기채	안정형 6등급 동양하이플러스	

■ 투자성향 ■ 펀드위험등급

KB PIMCO 글로벌 인컴 셀렉션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

펀드특징

-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인 PIMCO의 다양한 전략에 분산 투자하여 꾸준한 인컴 수익 추구
- 높은 이자수익을 추구하면서 금리 및 경기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

투자전략

"PIMCO의 거시경제 전망"

안전성	수익성
다양한 채권에 분산투자 및 리밸런싱 등 펀드자산배분(국채, 회사채, TIPs, MBS 등) (투자 위험 관리)	꾸준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여 인컴 수익 추구

투자포인트

- 핵심 포트폴리오로 INCOME FUND와 DIVERSIFIED INCOME FUND에 투자하여 높은 이자수익 추구
- 핵심 포트폴리오와 함께 글로벌 채권, 물가채 등에 분산투자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변동성을 완화하여 안정성 추구

기간수익률

기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수익률(%)	0.63	2.77	4.22	3.54	4.62	

* 출처: KB자산운용, 2019.04.30 기준, 벤치마크 없음, A클래스 수익률 기재

자산별 비중		보유종목(TOP10)	
투자자산	비중(%)	종목명	비중(%)
수익증권	92.52	PIMCO GIS INCOME FUND INS AC	58.39
유동성	7.48	PIMCO DIVERSIFIED INCOME FUND IA	30.85
합계	100.00	PIMCO GLOBAL REAL RETURN FUND INST USD ACC	3.29

상품개요	
운용사	KB자산운용(주)
펀드유형	채권-재간접형
벤치마크	없음
설정액	111억
설정일	2017.04.28
판매 수수료 및 보수	(Class A) 총보수: 연 0.72%, 선취판매수수료 0.7% (판매: 0.37%, 운용 0.28%, 수탁 0.04%, 사무수탁 0.03%) (Class C) 총보수: 연 1.15% (판매: 0.80%, 운용 0.28%, 수탁 0.04%, 사무수탁 0.03%)
매입방법	17시 이전: 제3영업일 기준가 적용 17시 경과 후: 제4영업일 기준가 적용
환매방법	17시 이전: 제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8영업일 지급 17시 경과 후: 제5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9영업일 지급
환매 수수료	없음

펀드위험등급

위험등급 기준 안내
KB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 중 4등급(보통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등급은 수집한 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매우 낮은 위험 6 | 낮은 위험 5 | **보통 위험 4** | 다소 높은 위험 3 | 높은 위험 2 | 매우 높은 위험 1

저위험 ← → 고위험

판매사 IBK기업은행 KB자산운용

쉽고 간편한 펀드투자 똑똑한 인공지능 i-ONE로보와 함께하세요!



i-ONE ROBO

구 분	펀드 포트폴리오	연금 포트폴리오
대상고객	개인 및 기업	개인 (연금저축가입대상자)
가입방법	영업점, 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은 개인고객만 가입가능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최저금액 10만원)	
포트폴리오별 펀드개수	3개 ~ 5개 (MMF 미포함)	5개 (MMF 필수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래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25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상품에 관한 상세내용은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계약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의필 제 18-03691호(2018.09.05~2019.08.21)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8-4075호(2018.08.31) 게시기한: 2019.08.21 출금번호: FP064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및 수수료 환매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 저보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과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국민신문 ☎1332, IBK기업은행: ☎030-800-0119, IBK기업은행은 금융·항운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ibkethics@ibk.co.kr)

※ 로보어드바이저가 제공한 포트폴리오 투자 의사결정은 고객 스스로 판단하셔야 하며, 은행은 고객의 투자에 따른 수익을 보장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심의결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 또는 투자성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특별한 당신을 위한
IBK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WIN CLASS

최고의 품격, 최상의 자산관리로 평생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WIN CLASS



IBK기업은행
WIN CLASS의
차별화된 서비스

- **Consulting** 최고의 자산관리 분야별 전문가가 다양한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드립니다.
- **Portfolio** 고객님의 자산증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전략을 제시합니다.
- **Premium** 고객님의 품격 있는 라이프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와 경험을 선사합니다.

· WIN CLASS는 IBK기업은행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Private Banking 브랜드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8-4081호(2018.08.31) 게시기한 : 2019.08.30 출금번호 : EP209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 ☎1566-2566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규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품·형용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